

제19년차 정기대의원대회 회의결과

■ 일 시 : 2019년 4월 23일(화) 14시 ~ 4월 24일(수) 12시

■ 장 소 : 용인 베잔송

□ 기념식

- 대회사 : 박태환 위원장

- 격려사 : 공공운수노조 최준식 위원장

□ 교육 : 노동개약 정세와 공공운수노조 투쟁계획(공공운수노조 최준식 위원장)

■ 본회의

○ 성원보고 및 본회의 성립선포

▷ 재적대의원 79명, 참석대의원 74명, 불참대의원 5명

○ 서기 및 감표위원 선출

▷ 서기 : 교선국장

▷ 감표위원 : 중앙선거관리위원

○ 회순통과 : '결의문 채택의 건(8호 안건)' 추가하여 수정통과

□ [심의안건1] 단체교섭위원 선출의 건(투표)

▷ 단체교섭위원 : 위원장, 사무처장, 본부장 5인, 정책실장

□ [심의안건2] 상급단체 파견대의원 선출의 건(투표)

▷ 민주노총 : 박태환, 이호동, 전수연(여성할당), 정희진(여성할당), 이태성(후보)

▷ 공공운수노조 : 남윤철, 박정규, 제용순, 최대봉, 이태성(후보), 조준성(후보)

□ [심의안건3] 규약 개정의 건(투표)

▷ 의결주문1 : 규약 57조(소집) 4항 삭제

규약·규정내의 '특별지부'를 '직할본부' 또는 '직할지부'로 명칭 개정

▷ 의결주문2-1 : 명칭 개정(한전산업개발발전지부 → 한전산업개발발전본부)

의결주문2-2 : 규정 개정(지부운영에 관한 특례규정 → 직할조직 운영에 관한 특례규정)

□ [심의안건4] 조합원 징계의 건(투표)

▷ *** 조합원에 대해 권한정지 3월 결정

□ [심의안건5] 에너지전환 정책 대응의 건

- ▷ 탈 석탄 정책기조에 동의하되, 발전노동자의 고용과 노동조건을 고려한 장·단기 대책 마련
- ▷ 석탄화력발전을 대체할 수 있는 재생에너지 등 에너지전환 정책에 능동적 대처

□ [심의안건6] 제18년차 사업보고 및 회계결산 승인의 건

- ▷ '성공보수 및 특별조합비 미납자 현황' 중 남부 윤** 삭제(납부 완료)와 납부방안 마련 요구
- ▷ 원안 통과

□ [심의안건7] 제19년차 사업계획(안) 및 예산(안) 승인의 건

- ▷ 일반회계 잉여이월금은 희생자구제기금으로 적립하고 재정자립기금의 '상근수당' 항목폐지를 포함한 원안 통과

□ [심의안건8] 결의문 채택의 건

- ▷ 원안 통과(붙임 참조)

□ 기타토의

- ▷ 서부노조의 시민대책위 위원(유승현, 이태성) 고소고발에 대해 강력 대응한다.
- ▷ 300인 이상 사업장-공공기관-지자체 등 2020년 1월부터 공휴일(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근로기준법상 유급휴일 적용 관련한 대응방안을 마련하여 현장에 알려낸다.

□ 폐 회

[붙임]

결 의 문

발전노조는 전력산업의 민영화를 막아내고, 발전산업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끊임없이 투쟁해왔다. 그리고 발전노동자의 노동조건 개선과 생존권 사수를 위해 민주노조 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해왔다. 그 과정 속에서 발전노동자들의 많은 희생으로 국민의 공적재산인 발전소를 지켜냈고, 발전노조를 민주노조로 사수해왔다. 그러나 그런 희생의 결과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발전현장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있는 해고동지가 6명이나 있다. 이에 우리는 이번 대의원대회를 해고자 원직복직의 방점을 찍는 대회로 삼고, 원직복직을 완성하기 위한 총력의 집중투쟁을 전개해 나갈 것이다.

발전현장에는 아직도 청산되지 않은 적폐인자들과 적폐시스템이 잔존하고 있다. 노동자를 일꾼 정도로, 노동의 가치를 생산물정도로 취급하는 천박한 자본의 총견노릇을 하는 적폐인자들을 반드시 청산할 것이다. 또한 비민주 반노동의 기회주의 어용의 또 다른 적폐를 심판할 것이며, 평등과 정의가 훼손되는 불합리의 적폐시스템을 바로잡을 것이다.

자본과 정권은 최저임금 산입범위확대와 탄력근로제 기간확대의 노동자 쥐어짜기에 이어, 이제는 노동조합활동 자체를 말살하려는 노동법개악을 밀어붙이려하고 있다. 파업 시 대체근로를 허용하고 사업장내 점거파업을 금지하는 것은, 아예 파업을 하지 말라는 것이다. 단체협약 유효기간을 4년으로 확대하라는 것은, 단체협약을 갱신하기 위한 투쟁은 포기하라는 것이다. 해고자를 노조간부에 출마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산별노조를 무력화하겠다는 것이다.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처벌조항을 삭제하겠다는 것은, 그냥 마음 놓고 노동탄압을 하라는 것과 다름없다.

이에 발전노조 제19년차 대의원 일동은 아래와 같이 결의한다.

하나, 해고자 원직복직을 완결하기 위한 집중투쟁에 나설 것을 결의한다.

하나, 발전현장의 적폐청산을 위한 실천행동을 전개해 나갈 것을 결의한다.

하나, 최저임금 산입범위와 탄력근로제 기간확대를 저지하기 위한 투쟁에 적극 복무할 것을 결의한다.

하나, 노동법개악을 분쇄하기 위하여 발전노조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여 총력투쟁 할 것을 결의한다.

2019. 4. 23

한국발전산업노동조합 대의원 일동